

코스피	2464.00	코스닥	677.15
	(-36.10)		(-13.65)
금리 (미국 9년)	2.626	환율 (원/달러)	1412.25
	(+0.041)		(+9.35)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
06

반려동물 친화공간 운영'

풍랑 만난 韓경제... 경기침체 속 정치 불확실성 암초

비상계엄 사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증대로 환율·가상화폐 등 금융시장 요동한은,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 국내 주식 외인 4078억 매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비상계엄' 후폭풍까지 더해져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가 커졌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4일 새벽 환율·가상화폐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외국인이 주식을 던지면서 코스피·코스닥지수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경기침체를 벗어나려는 한국 경제가 풍랑을 만난 꼴이다.

지난3일 밤 갑작스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순식간에 달러당 1444원까지 치솟았다. <관련기사 2·3·4면>

한국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는 순식간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자 '제2의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날 오전 한국은행은 예정에 없던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영향을 점검하고 시장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 한은, 단기유동성 공급

한은은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과 대상기관을 확대했다.

환매조건부매매란 일정 기간 이후 정해진 가격으로 되파는(되사는)것을 조건으로 증권을 사는(파는)것을 말한다. 일시적으로 자금 공급이 어려워 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을 우선 사는 방식으로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대상증권은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농업금융채권 ▲수산업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 등이다.

아울러 한은은 신용위험관리를 위해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매매 대상증권에서 제외한다. 자기발행채권은 종합금융회사가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채권으로 장기자금조달에 유리한 방식이다. 대상증권의 신용위험이 한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상기관은 국민·신한·하나 등 17개 국내은행과 미즈호·ING 등 7개 외은지점이다. 7개 자산운용사와 6개 중앙회(농협·산림조합·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수협·신협), 7개 증권사(메리츠·미래에셋·신한투자·NH·하나·한국투자·한국증권금융) 등을



野 6당,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 윤종오(왼쪽 네 번째부터) 진보당 원내대표, 옹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뉴스1

포함한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외국인 팔자에 외환위기 우려 ↑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어졌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尹, 명분없는 비상계엄 선포 野 “내란죄 고발·탄핵 추진”

與 18명 계엄해제요구안 찬성표尹, 취임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등 정치권에 광범위한 파장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10시23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야당의 국회의 정부 고위 관료 탄핵 추진과 감액 예산안 처리 등 예산 폭거를 들었다. 헌법상 계엄 선포요건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다.

윤 대통령은 "중복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3일 오후 9시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지를 굽히지 않은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고 계엄사 포고령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1979년

이다. 계엄사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과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했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시민들과 보좌진이 군인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아낸 결과 4일 새벽 1시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안 본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약 150분이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해제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공개일정을 모두 불참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일괄 사의 표명했다. 국무위원 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새벽 본회의에 참석해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4일 오전 7시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바로 반대 입장을 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 책임자 추궁을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실물경제 충격 없도록 24시간 모니터링”

경제관계 부처 시장감시 고삐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의 표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증권시장·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을 비롯해 경제상황 전반에 걸쳐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한 계엄 시국은 다행히 수포로 돌아갔지만, 기재부 등 각 경제관계 부처가 향후 일정 기간 시장 감시에 고삐를 죄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4일 오후 사의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합동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활동, 국민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안전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

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점검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챙기겠다”고 했다.

국가신용등급 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 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 시장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합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고용·소비 등이 정상적으

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생업과 기업 활동을 이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역시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계 최 부총리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이 100% 정상화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외환시장 등이 계엄령 해제 이후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음에 따라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외환시장 및 해외 한국주식물 시장은 급락세를 보이며 요동친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국회 행안위, 5일 긴급 현안 질의... '경찰 국회 진입 차단' 추궁
▲ 이재명 “尹 계엄 또 하고 국지전 벌일 수도... 함께 싸워달라” /사진 뉴스1

▲ 민주, 계엄 상황실 설치... “계엄 다시 이뤄질 수도”
▲ 6시간 만에 종료된 ‘계엄’, 자충수 둔 배경 관심



▲ 안철수 “윤, 책임지고 물러나야... 정치사 치욕” /사진 뉴스1
▲ 김동연 “명백한 쿠데타, 제정신 아닌 지도자”